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제5회 향기로운 차문화 축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한국 차인들이 허황옥에 헌다 공양을 올렸다.

한국 차인들, 허황옥에 茶 공양 올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제5회 향기로운 차 문화축제' 성료

한국의 차인들이 김해 가야국 김수로왕의 왕후 허황옥에게 헌다 공양을 올렸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은 11월 11일 부산 기장 청량사에서 '제5회 향기로운 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는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허충순 부산차인연합회 명예회장,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장, 최순애 한국차인대학 부산분원장 등 차인 및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에 이어 제1부 헌다례가 진행됐다. 헌다례는 헌향과 헌다 시연으로 시작해 이사장 보혜 스님이 허황옥 왕후에게 차를 올렸으며, 2부에서는 차와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차인과 문학인에게 상을 시상했다. 특히 향기로운문화동행은 허황옥 차인상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상했다. 허황옥 차인상은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받았다. 원효문화상은 황현일 비영리 문화공감 '빈자리' 홍보국장이 수상했으며, 동행문(門)문학상은 문인선 시인이 수상했다. 3부는 한국과 일본 차인들의 다법 시연과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와 함께 도량 일대에는 차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6대 다류 시음 찻자리가 이어져 축제를 찾은 시민에게 품격 높은 차문화를 제공해 박수를 받았다. 시음 찻자리에는 6대 다류라 불리는 백차, 녹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세계 차의 종류와 문화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아울러 일본에서 찾은 다도팀 코우후우 센차 레이시키가 다도 시연 및 차를 대접해 국제 차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5대 종단 종교인 '한몸평화' 기원

전북서 '하나의 날' 맞아 이야기마당 펼쳐



전북지역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이야기하는 하나의 날 행사가 열렸다.

11월 10일 전주 고백교회당에서 열린 행사는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개신교 등 5대 종교인들이 11월 11일 하나의 날을 맞아 '통일 꽃 피네 한몸평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마당을 펼쳤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원불교 성도종 교무, 천주교 박병준 신부, 천도교 김명국 선도사, 개신교 이현주 목사가 이야기 손님으로, 현진 스님과 선덕 교임 등 각 종교 지도자와 신도 100여 명이 동참했다.

천주교 이병호 주교는 여는 말을 통해 "하나 되고자 하는 거대한 민족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며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모든 사람은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 소중한 존재들"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종교의 대표들의 한몸평화 공동 기원식과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탑밴드와 진성 스님, 현진 스님, 선덕 교임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모두 하나 되자는 의미를 담아 '광야에서'를 개사해 불렀다. 또 종교인 연합중창단은 참석한 대중들과 함께 '사랑으로'를 노래하며 이 땅의 평화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행으로 승화한 부모의 수능기도

해남사, 수능 전날 〈금강경〉 독송 정진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수능을 하루 앞둔 법당, 수험생의 얼굴 사진이 경전 위에 놓여 있고 부모들은 합장한 채 〈금강경〉을 독송했다.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의 독송에 맞춰 〈금강경〉을 읽던 불자들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발원을 잊지 않았다. 자식의 성공을 위한 무작정 소원을 비는 모습이 아니었다. 경전을 통해 얻은 참된 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삼는 성숙함이 비쳤다.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혜원)는 11월 14일 경내 설법보전에서 '원(願) 성취를 위한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법회'를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시작해 불자들이 직접 참여 소감을 전하고 주지 혜원 스님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전국 수험생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때, 해남사는 새로운 기도 방향을 제시하며 수행의 의미를 금강경에서 찾도록 권유했다. 불자들은 매일 새벽 5시에 해남사를 찾아 금강경을 독송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며,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2시 등 3차례에 나눠 하루 9시간, 총 21일 동안 금강경 독송 법회에 참여했다. 정진 기간 불자들이 금강경을 독송한 횟수는 총 441번이며 해남사 신도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회향을 맞아 불자들은 경전에서 수행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전 독송으로 지혜의 길을 얻었다고 말했다.

매일 9시간 21일 독송 참여
작복기도 넘어 수행 뜻 담아
200여 불자 총 441회 독송
"신수봉행 자세로 행복하길"

김영숙(여래행) 불자는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이 금강경 독송을 하며 지냈는데 19일째 되던 날 스님의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며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시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했다. 함께 해준 도반들의 응원으로 회향까지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영선(법성심) 불자는 "정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화두 들고 참선하듯 일념으로 경전 독송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새로운 수행법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스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한 도반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의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회향법회에서 합장한 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불자들.

회향법회에서 주지 혜원 스님은 무엇보다 '신수봉행(信受奉行)'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혜원 스님은 "금강경 마지막에 개대환희(皆大歡喜) 신수봉행(信受奉行)이라 했다. 독송 기간 동안 얻은 가르침을 지니고 매순간 부처님처럼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복을 짓는 불자가 되라"고 격려했다.

해남사는 1911년 10월 '통도사 울산포교당'으로 건립됐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및 불교대중화와 민족교육을 선도하는 문화교육 공간이자 청년운동의 구국도량이었다. 지난 9월 취임한 주지 혜원 스님은 해남사의 비전을 포교·교육·수행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개최한 〈금강경〉 독송법회를 확대해 '경전독송회'를 창립했다.

주지 혜원 스님은 "앞으로 경전독송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이끌고 더 많은 경전을 익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또한 형식도 경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 나가 삼라만상 법음을 들려주고 섭생화생까지 제도하는 불보살의 마음을 익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귀의·오계'로 부산불자 신심 점검

조계종부산聯 11월 24일 삼귀의·오계 수계법회 봉행

승보공양 및 성도재일 등 법회를 열고 신심의 법석을 마련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불자의 기본인 오계를 강조하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회를 새롭게 마련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불자가 되려면 첫 관문인 불법승에 귀의하는 삼귀의로 믿음을 세우고 생활 가운데 오계를 지켜 부처님 법을 행해야 한다"며 "법회를 통해 신심을 고취하고 부산 불자에게 다시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계사는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성우 스님이며 존중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전임회장인 수불·수진 스님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인 원범·지현·정현·화랑 스님이 맡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에서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승보공양 법회 모습.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법회에서 연비 대신 통도사, 상원사, 건봉사, 법흥사, 정암사 등 5대 보궁에서 직접 담아온 관정수(灌頂水)로 수계의식을 진행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앞서 11월 5~6일 각 보궁을 방문하고 관정수를 채수했으며, 12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에서 관정수를 합수(合水)하며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를 통해 불자들이 더욱 성장하고 행복할 것을 기원했다.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는 지난 11월 1~8일 부산 관음사서 '삼귀의와 오계'를 주제로 열린 '제2회 비니법석 평등법회' 회향 자리이기도 하다. '비니'는 산스크리트어로 '계율'을 뜻하며 비니법회 기간 동안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7명의 율사 스님들이 릴레이법석을 진행했다. '삼귀의·오계 수계법회'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팔공산 아미사 중창불사 회향

팔공산 아미사(주지 덕현)가 11월 12일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경내 대적광전 큰법당에서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용주사 회주 현근 스님, 진오·정혜 스님, 해동사 주지 선행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수계법회 증명법사 현근 스님은 "마음의 복덕은 계를 조심하면 죄를 지을 일은 없다"며 "상대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참회와 기도로 업을 소멸해 가정과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해 인간의 위대한 존재, 존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